

순천 농수산물, 싱가포르 첫 수출... 동남아 시장 개척

협약업체 엘엔씨에 1000만원 상당 농수산물·건어물 수출



순천시는 시와 순천시농식품수출협의회 주관으로 해룡산단 내에 위치한 ㈜정덕농수산에서 싱가포르 첫 수출 상차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지난 4월 초 순천시가 싱가포르 식품박람회(FHA)에 참가하고 현지 유통망과의 수출 상담 및

업무협약을 통해 성사된 동남아 신시장 개척의 성과로, 싱가포르 현지 유통업체인 엘엔씨(LNC Pte Ltd)를 통해 총 1000만원 규모의 농산물 4

개 품목과 건어물 3개 품목이 수출된다.

싱가포르는 아세안(ASEAN) 중심 국가이자 아시아와 유럽, 미국을 잇는 외교 허브로, 세계 2~3위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는 글로벌 항만 물류 중심지이다. 이번 순천시 농수산물의 첫 싱가포르 수출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 판로 확대와 수출 경쟁력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차식은 단순한 물류 출발이 아닌, 순천 농수산물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생산자와 수출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수출 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양커뮤니티센터서

디지털배움터 운영 재개

광양시는 28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약 8개월간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배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에는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과건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해왔으나, 2024년부터는 전국 37개소를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로 지정해 개별 시민들의 교육 접근성을 강화했다. 전남 지역에서는 광양커뮤니티센터, 남악북학주민센터, 보성노인복지관 3곳이 거점센터로 선정됐다.

광양시는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로 지정된 광양커뮤니티센터(2층)에 강사와 보조강사를 상시 배치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AI 기반 눈 검진 장비(아이케어), 디지털 활압계, 인바디 측정기, 스트레스 측정기, 키오스크(무인주문기) 등 5종의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함께 운영했다. 그 결과, 800여 명의 시민이 디지털 교육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양커뮤니티센터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의 2025년 5월 교육과정은 ▲스마트폰 기초·활용 ▲컴퓨터 기초·활용 ▲한글문서 기초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광양시는 교육 수요에 맞춰 4주(16차시) 정규 과정부터 1주(4차시) 단기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광양시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매월 말 개설되는 교육 강좌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거점센터 방문이 어려운 기관과 단체를 위한 디지털 광견 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보성, 여름 모기 걱정 ‘뚝’
유충 단계부터 집중 방역

보성군은 여름철 모기로 인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 유충 단계에서부터 집중 방역을 추진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기존 상승 전인 지난 2월 해방기에 1차 유충구제를 완료했으며, 3월 14일에는 전 읍면 대상 일제 방제 작업도 마무리했다.

이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는 2차 유충구제를 추진해 본격적인 성충 발생을 앞두고 모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방역은 정화조, 하수구, 물웅덩이 등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에 약제를 집중 살포해 성충으로 성장하기 전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모기 유충 구제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면서, “군민 여러분도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등 자율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성, 논콩 생산성 향상·품질 고급화 현장 컨설팅 진행

논촌진흥청과 협력...재배 애로사항 등 현장 지도

보성군은 최근 논콩 재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논콩 영농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논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과의 협력해 진행했으며, 재배 기술, 병해충·토양관리, 수확 후 처리 등 각 분야의 최고 농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맞춤형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논콩 수량 감소 및 습해 피해 등 재배 애로사항의 원인을 규명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컨설팅에 참여한 농업인은 “평소 재배 현장에서 느끼던 어려움에 대

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얻는 기회였다.”라며,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들로 고품질 논콩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논콩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농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유망 작물”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영농 기술 지원을 확대해 논콩 재배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구례 서시교 지키기’ 1만 명 서명운동 본격화

냉천리를 시작으로 오는 29일 구례읍 의장단 설명회



구례군 서시교 공동대응기구(구례군, 구례군의회, 경찰청의령실, 서시교대책위)는 지난 23일 마산면 냉천리 마을회관에서 ‘서시교 지키기 1만 명 서명운동

냉천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11일 구례군

의회 광장에서 열린 서시교 존치 서명운동 발대식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마을 단위의 발대식으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구례군의회 장길선 의장은 “냉천리를 시작으로 서명운동이 잘 이루어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서시교가 존치되었으면 좋겠다”며 “1만 명에 달할 때까지 많은 군민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서시교 지키기 1만 명 서명운동은 25일 용방면 이장단 설명회, 29일 구례읍 의장단 설명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구례=오광범 기자

곡성, 수원서 ‘귀농귀촌 지역살리기 박람회’ 참가 홍보활동

“준비부터 정착까지 한번에”

곡성군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년 귀농귀촌 지역살리기 박람회에 참가해 수도권 도시민과 귀향을 꿈꾸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적극적인 귀농귀촌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귀농귀촌정책, 곡성물, 고향사랑기부제, 곡성여행 등을 안내

하고 곡성의 대표 농특산품인 백세미, 토란, 토란가공품, 발효식초, 멜론(멜론청, 막걸리), 과일주스(사과, 포도, ABC), 한미, 오색미, 오색미가공품 등을 전시하여 도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귀농귀촌정책은 1세대 500만 원 보조 100%인 농가주택 수리비, 1세대 1200만 원 보조 50%, 자담 50%인 신규농업 인력육성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사업 등을 안내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도시민들이 곡성군의 지리적 정보를 인지하고, 귀농을 하게 된다면 대표 농특산물 백세미, 토란, 체리, 멜론, 블루베리 등 작목 선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사전 조사와 체계적인 계획이 있다면 수도권 도시민들도 성공적으로 농촌지역에 정착할 수 있으며, 우리 군도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지속적인 도시민의 귀농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곡성=홍경백 기자

광양 ‘노동안전지킴이’ 산재 예방 활동 본격 추진

민간전문가 6명 위촉... 중소 사업장 중심 안전 점검 강화



광양시는 관내 건설업 및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자와 사업주의 안전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인력으로, 시는 지난 3

월 공개 모집을 통해 산업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6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 및 제조 현장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 여부 △안전관리자 등 인력 배치 적정

성 △개구부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 △작업장비 운용 중안전조치 미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광양시는 위험 요인이 중대하거나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유도함으로써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3년간 지역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사고원인과 예방 대책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점검과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해 산업현장 합동점검 및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도 추진해 지역 산업 현장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광양, 학습 소외계층 1인당 최대 35만 원 지원

총 3041명 선정...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본격 추진

광양시는 학습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 참여가 어려운 시민의 자기 계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시민이 원하는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된다. 광양시는 올해 총 301명(일반 269명, 장애인 32명)을 선정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

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1차 접수는 오는 5월 14일까지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등 대상으로 한다. 이후 2차 모집은 6월 중 진행되며, 어르신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 시민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라남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등록장애인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광양시청 커뮤니티센터 5층 교육청 소년과 평생학습팀을 방문하면 된다.

/광양=조순익 기자

곡성,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최대 50만원...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곡성군이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곡성군은 28일부터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받는 방식이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사업 공고일 현재까지 곡성 지역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다.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간이며,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곡성군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조상래 군수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홍경백 기자

순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순천시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다목적홀에서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일 순천시 주최,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노관규 순천시장, 순천시의회 의원, 유관 시설 및 단체, 장애인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함께 해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는 장애인 및 국가대표 국악단, 순천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축하공연이 이어져 참석자

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1부 행사에서는 ‘장애를 넘어 마음으로 하나 되는 순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2부 문화탐방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순천만국가정원을 둘러보며 즐거움과 힐링의 시간을 만끽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 자리가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은 내일을 여는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순천시는 앞으로도 장애를 넘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구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프로그램 성공적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구만사’ 특강 성료

구례군은 지난 24일 통합여울센터(구례읍사무소)에서 ‘구만사(구례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마지막 특강을 개최하며, 4주간의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구만사’는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한 2025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도시재생과 인문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특강 시리즈이다. 이번 특강은 4월 3일부터 매주 1회씩 총 4주간 진행됐으며, 1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연은 ▲정종민 건축사의 ‘타 지역 도시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서 적용 가능성 알아보기’ ▲장하수 박사의 ‘매력적인 도시란 어떤 도시인가?’ ▲정상연 박사의 ‘음악, 감동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다’ ▲강보선 박사의 ‘동구 인문학당 사

레로 오래된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순으로 이어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이번 특강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고 평가했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이번 특강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특강이 구례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군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통해 구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